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올바른 가치 수성

성경: 느헤미야 4장 14-20절

Tag: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4:14-20)

느헤미야 4장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 왕후 시절 이후의 궁중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 세심하게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부임했으며,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잘 준비해서 부임했다.

그는 즉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성문을 재건하였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이 수축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 지기 때문에 이들은 작당을 하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의 선조격)

그들은 암살 음모도 꾸미고, 위협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이는 모두 유대인 들으라는 말),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행위로 몰아붙였지만, 확고한 신념을 지닌 느헤미야를 당해내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변 총독들의 위협에 대해서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당부하는 말이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노략하던 자들이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보수하니 화가 났다.

그들은 주변의 유대인들을 위협하며,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다. 그리고 작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백성들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와 함께 협력하여 신앙 부흥운동에 힘썼다. 그는

정치와 종교에서 매우 유능한 인재였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적하고, 선한 나라는 선한 나라들끼리 뭉치고, 악한 나라는 악한 나라들끼리 뭉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북한과 남한이 전쟁 중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이슈 가운데 핵심 이슈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민주당은 어찌되었든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지내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가치관, 즉 힘의 우위로 평화를 유지하고 미국과 일본과 연합해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겨루어 북한의 정치 체제를 흔들어서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비슷하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유대민족의 땅이었고, 자신들은 2천년을 떠돌며 재건을 노리고 있었고, (원래 팔레스타인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받아 독립이 인정되었다는 주장이다.

팔레스타인도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하마스는 테러와 무력시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요단강 서안지구까지 자기들이 통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전쟁 초기부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즉 군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므로, 테러와 여론전을 이용해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참하게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고 구호품이나 인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학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전술보다 훨씬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잔악한 여론전과 자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지하 땅굴에서 전쟁했던 것, 자신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진을 세계에 유포해서 서방세계의 여론을 뒤집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만들었던 것 등 여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쟁취하려는 알팍한 수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평화쇼를 하고, 우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과 선동을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치듯 철수한 것도 하마스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자서 아랍 전체와 싸우던 전력이 있는 나라다. 모두 느헤미야의 후예들인 것이다. 이제 다시는 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정신으로 뚝뚝 뭉쳐 있는 나라다.

테러,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전쟁하는 하마스와 온 국민이 뚝뚝 뭉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과연 누가 이길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나는 해답이 유대교에 있지 않고 기독교에 있다고 본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카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다. 이들이 힘을 내서 팔레스타인에게 우호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국민이 되고 싶은 자들이 많

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며 영적전쟁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수십년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계속해서 여론전에 밀려가고 있다. 우파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좌파 언론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틈만 나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승리를 50년째 울궤먹고 있는 셈이며, 하마스도 같은 말에 올라탔다.

그러나 이미 괴담에 대한 백신은 만들어진지 오래다. 온 국민이 괴담백신을 접종해야 전쟁이 끝난다.

괴담 백신은 무엇이나? 그것은 곧 '올바른 가치'다. 느헤미야는 올바른 가치로 모든 두려움, 괴담, 위협등을 물리쳤다. 그리고 군사력과 방어벽, 민생, 신앙심까지 모두 챙기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결국은 올바른 가치로 예루살렘 성과 백성을 지켜낸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올바른 가치는 성경의 가치밖에 없다.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고, 허물 수 없다.

성경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한다.**

좌파도 죄짓고 타락하다가 망했고, 우파도 죄짓고 타락하다가 망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 모든 정권은 죄를 짓고 타락하다 망한다.

오직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승리하고 성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고, 죄악과 싸워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도비야는 괴담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거철만 다가오면 각종 괴담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마땅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학연에 휘청, 지연에 휘청, 감성팔이에 휘청거린다. (우리가 남이가에 휘청, 세월호에 휘청, 헬로윈에 휘청, 위안부상에 휘청)거린다.

그러다 거짓말일지라도 뽀뽀하게 큰소리 치는 문화가 자리를 잡자, 유권자들도 더불어 (**갑질하는 재미에 휘청 거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도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지킬 것인가, 북한 괴뢰 정권을 옹호하고 휴전선을 고착시키고 북한을 단순히 중국을 위한 완충지대로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수성이 될 것인가?

기도 하면서 투표하자.

호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 찍는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한다.

영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 힘 찍는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정신'을 비롯한 감성팔이 정치로는 결코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 세만금 사태, 사대강 보 해체, 고용세습 등은 우리끼리 세금 파먹자는 쥐새끼 정신이다.

죽어가는 어린이를 전쟁에 이용하는 것은 공포심과 적개심을 노리는 마귀짓이다. 그 마귀짓에 휘둘리는 자는 결코 보이스피싱에서도 헤어나지 못한다.

선거가 왜 영적 전쟁인지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우쳐야 한다.

세계사를 보면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갔다. 1,2차 세계대전 역시 정의로운 나라들이 승리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웠다.

미국도 전쟁을 통해서 독립했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연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미국은 성경의 가치관 개신교의 가치관으로 승리했다.

남한을 지켜낸 정신이 반공정신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는 짓을 보고 몰래 먼저 피난 내려온 기독교인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의 실체를 파악한 기독교인들, 공산당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쟁은 승리했고, 이 나라는 폐허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올바른 가치 수성’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감성팔이 언론에 세뇌당해 올바른 가치를 외치면 왕따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점점 세상은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감성팔이, 거짓말, 이념 율법주의는 이미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것들은 조선시대의 양반논리와 같이 시대에 뒤쳐지는 꾀대소리가 되고 말았다.

‘Build Up Korea’는 이런 MZ 세대들을 올바른 가치로 세우려는 운동이다.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재건하는데 힘쓰는 영적전쟁에 동참하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린다. 아멘.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